
14호를 발간하며

뮤지엄한미연구소는 2022년 12월 21일부터 2023년 4월 16일까지 열렸던 뮤지엄한미 삼청의 개관전 《한국사진사 인사이드 아웃, 1929-1982》를 준비하면서, 한국사진사의 전개에 있어서 대구 지역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2023년 연구소 사업을 대구사진사 정리에 일조하기로 했다.

연구소 사업은 크게 세 방향으로 나아갔다. 첫째는 한국사진사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대구사진계의 주요 인물 및 단체와 관련된 문헌을 수집하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향후 대구 사진이 한국사진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자리매김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손망실의 위험에 처한 대구 지역 출신의 주요 작고 사진가들의 작품을 컬렉션하는 일이었다. 연구소는 뮤지엄한미 개관전 준비과정에서 유족에 대한 정보 부재, 주요 사진가들의 원본 필름과 빈티지 프린트의 부재로 여러 어려움을 겪은 터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까지의 대구사진사에 대한 연구성과와 그 한계 그리고 미심쩍은 부분을 대구사진사 관련 전문가의 육성을 통해 들여보고 앞으로의 연구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 모든 일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세 분이 계신다. 우선은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과 교수를 역임하신 강위원 선생님이다. 작고 사진가들의 유족을 직접 만나시면서 연구소의 취지를 설명해 주셨고, 뮤지엄한미의 사진 컬렉션에 도움을 주셨다. 게다가 그가 집필한 『대구사진80년, 영선못에서 비엔날레까지』(도서출판 학이사, 2013)는 이번 연구소 사업의 길잡이 끈이 되었다. 다음은 서규원 선생님이다. 그는 자신이 소장한 대구사진사 관련 문헌들을 흔쾌히 연구소에 기증해 주셨고, 작고 작가의 사진 컬렉션에도 정성을 베풀었다. 마지막으로 대구 사진사가 김태욱 선생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어려운 인적, 물적 상황 속에서도 그는 대구사진사 정립을 위한 기본자료 수집과 정리 작업에 젊음을 헌신했다. 그의 선행 작업이 없었다면 2023년의 연구소 사업은 몇 년 뒤에나 마무리되었을 것이다.

『사진+문화』 제14호는 대구 사진가 고 김재수 선생께 헌정된다. 강위원 선생과 서규원 선생께서 뮤지엄한미의 설립 취지와 그간의 활동을 유족께 긴히 설명해 주셨고, 유족께서는 신뢰를 표하시면서 김재수 선생의 유작 전부를 뮤지엄한미에 기증하셨다. 뮤지엄한미는 그 믿음에 감사함을 전하고자 『사진+문화』 제14호를 유족과 선생께 바치기로 했다. 다시 한 번 연구소 사업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2024년 2월
뮤지엄한미연구소

기증작으로 본 김재수의 사진세계

I.

김재수(金在洙, 1929-2006)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40여 년간 사진을 창작표현의 한 매체로 탐구해온 대구의 대표적인 사진가이다. 김재수는 1960년대 전후부터 대구사우회(1954),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북사진협회(1962), 한국창작사진협회(1965) 그리고 1970년대 한국사진협회 경북지부에서 활동하며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발표장을 통해서 사진적 이력을 쌓았고 대구사우회의 지도위원, 경북사진협회 지부장 그리고 여러 작고 큰 사진공모전의 심사위원을 역임하며 대구의 중견 사진가로 입지를 굳혔다.¹⁾

김재수는 개인전을 열지 않았고 사진집 출판도 하지 않았다. 김재수의 작품 행보를 한 자리에서 살펴볼 기회는 생전에도 사후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의 사진들을 시기나 주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가 활동했던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사진계에서 개인전보다 단체전과 사진공모전 입상이 작가적 역량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이력이었고, 무엇보다 한동안 대구사진계에 번졌던 사진평론의 경색된 분위기는 개인전을 통한 작품 발표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다. 김재수 역시 대구사우회나 한국사진작가협회의 단체전 혹은 해외 사진공모전을 주된 작품 발표의 장으로 삼았고, 그는 각기 다른 사진경향에 대한 적개심과 이를 비판적으로 평하는 일부 사진계의 풍토로 인해 개인전을 개최하기는 어려웠다고 회고한 바 있다.²⁾ 김재수에 대한 조명이 시작된 것은 2009년 대구문화예술회관과 대구사진문화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대구미술다시보기 사실주의 vs 조형주의 1950·60년대 대구의 사진논쟁》(대구문화예술회관, 2009.7.14.-8.2.)³⁾이었다. 대구사진사를 대구사진계의 두 축을 이루었던 대구사우회와 대구사광회(1955)의 주요 멤버를 중심으로 구성한 이 전시에서 김재수는 대구사우회의 주축 인물인 안월산(1909-1978), 김태한(1928-2004), 박달근(1926-2000) 등과 함께 조형주의 그룹으로 소개되었다.

대구사진사를 조명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후속 연구가 여전히 미진한 이유는 원본의 부재에 있다. 김재수의 사진은 단체전 전시 팸플릿과 기념 사진집, 『한국사진연감』, 『대구근현대사진선집』 등 출판물을 통해서 한두 점 열람할 수 있지만 그의 사진 이력을

1) 김재수는 1965년에는 효성여자대학교(현 대구카톨릭대학교) 응용미술과에 출강해 사진학을 강의했고 이후 1970년대에는 YMCA사진반에서 꾸준히 사진을 가르치며 교육자로서의 길을 걸었다. 자세한 연보는 뮤지엄한미연구소 편찬, 『뮤지엄한미연구소 자료집 vol.14 한국사진사 구술프로젝트: 대구사진사와 대구사진교육사』(가현문화재단, 2023), 171-172 참고 할 것.

2) 김재수는 1960년대 대구사진계에 대해 “1960년대는 한마디로 전시 상황이었어요. 비평이 무서워서 서로 개인전을 못할 정도였어요. (...) 작가로서 개인전을 못 한다는 것은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입니다.”라고 회고했다. 당시의 분위기를 대변하듯 김재수뿐만 아니라 배상하, 강영호, 김태한 등 대구사진계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많은 사진가들은 개인전을 개최하지 않았고 대구사광회 교문으로 회를 이끌었던 구왕삼의 개인전은 활동기 반이었던 대구가 아니라 진주와 목포 등 타 지역에서 열렸다. 김재수의 인터뷰는 정홍기, 『face to face: 대구원로 사진가 김재수』, 『포토하우스 45호』(1999년 8월), 8-9를 참고.

3) 《대구미술다시보기 사실주의 vs 조형주의 1950·60년대 대구의 사진논쟁》은 대구사진문화연구소와 대구문화예술회관이 공동 주최로, 대구사진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 전시는 1950-60년대 일간지상의 '사진논쟁'에 주목하여 사실주의와 조형주의 사진의 두 섹션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있다. 사실주의 그룹에는 구왕삼, 박영달, 배상하, 서선화 조형주의 그룹에는 강영호, 김재수, 김태한, 박달근, 안월산이 소개되었다.



김재수, 1945. 8. 15, Gelatin silver print, 12 x 8.7cm

대표하는 국내외 공모전 입상작이나 회원전 출품작의 확인은 어렵다. 김재수와 함께 동시대 대구에서 왕성히 활동했던 여타 사진가들의 작품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의 사진 활동을 뒷받침하거나 실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진이나 자료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한국사진사의 폭넓은 지형을 가늠케 하는 연보에도 불구하고 원본의 부재로 이들에 관한 조사, 연구는 가로막혀 있다. 이는 개별 작가의 미학적 성취와 배경은 물론 이들의 성장을 부추기고 동력으로 작용했을 당대 한국 사진예술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성장하지 못하는 주된 요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2023년 김재수 사진 기증은 김재수 뿐만 아니라 동시대 대구와 함께 성장했던 한국 사진예술의 연구를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필자는 김재수가 탐구해온 사진의 미학적 발자취를 이번 컬렉션을 통해 추적해보고 그의 사진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김재수의 컬렉션은 1945년 8월 15일의 사진으로 시작한다. '1945. 8. 15'이라 기록된 이 사진은 민족 해방의 기념비적인 날을 가리킨다. 사진에 보이는 건물 외벽 기둥에는 '민족전체의 행복된 날로!'라는 표어가 크게 걸려있고, 건물 앞 광장은 식민의 치욕을 떨치고 해방을 맞이하려는 군중들로 가득 차 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열여섯의 김재수는 해방의 풍경을 사진으로



김재수, 1958.11.28, Gelatin silver print, 7.7 x 5.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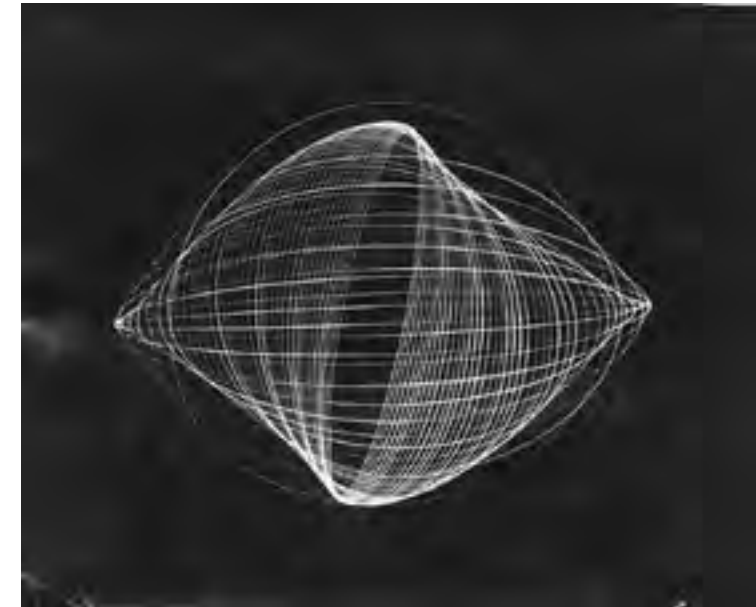
기록한 것이다. 또 다른 기록 사진은 1958년 11월 김재수의 초상이다. 김재수는 스스로를 카메라 앞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번에는 카메라 장치를 통제하고 포착의 순간을 선택하는 자신이었다. 사진 속 '나'는 피사체로서만 존재하는 사진적 대상이 아니라 장면을 지배하는 사진의 주체였다. 그의 초상 사진은 단지 현실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의 자각이었다. 스물아홉의 김재수는 자신을 사진가로 공언하고 있다.⁴⁾

김재수가 스스로를 사진가로 선언한 뒤 본격적으로 사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빛과 어둠'이었다. 김재수의 1960년 작 <펜듈럼(Pendulum)>은 《제5회 대구사우회 작품전》(대구 USIS화랑, 1960.12.1.-4.)의 출품작으로, 추의 진자 운동을 사진에 응용한 것이다. 김재수는 "손전등을 흔들며 추의 진자를 장시간 노출"하여⁵⁾ 빛의 추상적인 형상을 기록했다. 흑백 사진현상소 '영신당'을 40년간 운영하면서 다양한 암실 기법에 능했던 그는 주로 암실에서 이루어지는 사진의 다양한 기술적이고 실험적인 기법에 주목했다. 그에게 사진은 현실의 대상을 온전히 모사하는 재현 매체가 아니라 빛을 탐구하는 미적 도구였다. 빛은 세계를 움직이고 창조하는 만물의 근원이며, 빛이 없이는 지구상의 생명도 사진도 없다. 김재수는 사진의 절대적 질료인 빛을 재현하며 사진만의 정수를 탐닉했다. 대표적인 리얼리스트로 대구사광회(1955)를 이끈 구왕삼(1909-1977)은 <펜듈럼>을 "아무런 표현과 내용이 없는 (...) 기술사진에다 등장시킨 것은 한국만이 볼 수 있는 '넌센스'"라고 평했으나⁶⁾ 펜듈럼 사진은 '아

4) 김재수가 대구사우회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한 시점으로 보인다. 필자가 검토한 대구사우회의 회원전 팸플릿은 제2회(1958), 제5회(1960), 제9회(1966), 제10회(1967), 제11회(1968), 제15회(1972)로, 김재수는 제5회가 열린 1960년 명단에 처음 등장하고 있어 1958년과 1960년 사이에 입회한 것으로 보인다.

5) 정홍기, 『face to face: 대구원로사진가 김재수』, 8.

6) 구왕삼, 『경자년 향토문화 결산보고서(사진) 진통에서 새 발전으로-활기 띤 해외진출의 해』, 『대구매일신문』, 1960년 12월 19일.



김재수, <펜듈럼>, 1960, Gelatin silver print, 18 x 22cm

무런 표현과 내용이 없'다거나 김재수만의 '기술적' 창작물은 아니었다. 1952년 독일의 피터 키트만(Peter Keetman, 1916-2005)도 펜듈럼 사진을 제작했다. 그는 진자 운동에 의한 빛의 심미적 형상을 루미에르(lumière)와 포토그램(fotogram)의 합성어 <루미노그램(Luminogram)>이라 칭했다. 빛을 직접 투사하여 얻은 형상이라는 뜻으로, 이는 '뉴 비전(New Vison)' 운동을 이끌며 사진을 빛의 미학으로 정의했던 독일의 라슬로 모호이너지(László Moholy-Nagy, 1895-1946)의 영향을 보여준다. 사진기 없이 빛을 투사해 추상적 형상을 포착하는 포토그램은 모호이너지가 특히 애착했던 기법으로, 모호이너지는 "순수하게 사진적인 방법"만이 사진의 독자성, 매체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키트만은 1949년 지크프리트 라우테르바서(Siegfried Lauterwasser, 1913-2000)와 볼프강 레이스비츠(Wolfgang Reisewitz, 1915-2012) 등 독일의 여러 작가와 함께 모호이너지를 비롯한 1920년대 바우하우스(Bauhaus)의 아방가르드 정신을 이어받아 '포토포름(Fotoform)'을 결성했다. 곧이어 합류한 오토 슈타이너트(Otto Steinert, 1915-1978)를 주축으로 사진의 객관성에 의거한 재현 미학에 대립하는 '주관적 사진(Subjektive Fotografie)' 운동을 행하고, 이들은 모호이너지가 견인한 사진의 모더니즘을 폭넓게 탐구하고 발전시켰다. 슈타이너트는 1951년 독일의 자르브뤼켄(Saarbrücken)에서 열린 《주관적 사진: 국제 현대사진전(Subjektive Fotografie-Internationale Ausstellung moderner



김재수, 〈어부〉, 1960s, Gelatin silver print, 41 x 53 cm

Fotografie》(자르브뤼켄 주립 예술공예학교, 1951.7.12.-27.)을 기획하면서 사진의 본질은 창조적 성격에 있고, 사진가는 창조적으로 현실을 변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⁷⁾ 유럽의 모더니스트들은 다른 매체와 차별되는 사진만의 매체적 특성과 기술을 통해 사진의 미학적 가능성을 확장시켰다. 펜들럼 사진도 이러한 과정에서 발견된 사진의 독자적 표현이었다.

III.

빛의 탐구는 1960년 작 〈S홀의 인상〉과 1961년 작 〈무제〉, 〈프로필〉로 이어진다. 김재수는 빛을 직접적으로 투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역광을 이용해 현실에 내재해 있던 추상적 형상과 시각에 가려진 질감을 묘사한다. 역광은 현실의 디테일을 과감히 삭제하고 빛과 어둠만으로 형상을 탐구했다. 식물의 봉오리와 줄기는 마치 타조의 머리와 목의 형상을 내포하고 있었고 식물을 감싼 털은 마치 동물의 그것을 연상시켰다. 빛의 드로잉은 어둠이 삼킨 여성의 측면 실루엣이 남긴 선적 미학을 재현하고 있다. 〈어부〉와 〈잔해〉 역시 역광의 실루엣과 강한 명암 대비로 현실의 세부 묘사를 지우고 더욱 극적으로 현실의 추상화를 이루고 있다. 이는 독일의 허버트 리스트(Herbert List)의 사진작품에 나타난 해수면에 비친 사물의 대칭적 형상과 암부만으로 표현된 사람의 실루엣을 연상시킨다.

김재수에 따르면, 추상적 사진은 “자연에서 해방된 예술”로서 “순수하고 본질적”이며,

7) Michel Frizot ed. *The New History of Photography*, trans. Susan Bennett, Liz Clegg, John Crook, Caroline Higgitt (Könemann Verlagsgesellschaft mbH: Köln, 1998), 672.

“인간성의 근저에 숨은 본질을 발굴”하고 일상의 사물이나 자연에서 “우주의 초자연적 진리의 부호 발견”한다.⁸⁾ 그는 보는 그대로의 현실에 진실의 본질이 담겨있다고 믿지 않았다. 그 안에 숨겨진 다른 형상이 ‘우주의 부호’를 이루고 ‘초자연적 세계’를 안내한다고 여겼다. 김재수의 추상적 사진은 단지 리얼리즘 사진과 대비되는 사진으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만레이(Man Ray)의 포토그램은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다루고 있다고 언급한다. 그의 추상적 사진은 그 궤를 같이 하는 싸롱아루스(Salon Ars, 1960)의 1961년 대구 순회전의 사진전평에서도 이어진다. 싸롱아루스의 흑백의 대비가 강한 사진적 표현에 대해 “주관적이고 조형적이며 때로는 서정적”인 사진으로, “‘에브스트랙셔널 버라이어티 [abstractional variety]’에 충만한 표현”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의 추상적 사진은 대구사우회의 김태한의 시평에서도 언급되는데, 김태한 역시 리얼리즘 사진과 대립하는 사진을 추상적 사진이나 초현실주의적 사진 그리고 구성주의적 사진에 두고 있으며, 추상적 사진에 대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전개시키지는 않았다.⁹⁾ 사실 사진의 재현과 비재현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사진 경향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은 한국사진계에 이미 팽배해 있었는데, 두 사람의 사진적 시각은 리얼리즘 사진을 주창한 대구사광회와 서구의 모더니즘 사진을 사숙한 대구사우회의 사진적 태도를 대변하고 있었다.

김재수가 활동의 발판으로 삼았던 대구사우회는 1930년대부터 활동했던 동명의 사우회를 시원삼아 그들의 명맥을 잇고자 안월산을 주축으로 1954년 재결성했다.¹⁰⁾ 그들의 고문은 일제강점기부터 예술사진의 개척자로 불렸던 최계복이었다. 대구의 사진예술의 전통성을 바탕으로 재결집한 대구사우회는 회화주의에서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목하며 사진의 주관적 표현으로 나아갔다. 이들의 반대편에서 구왕삼이 지도했던 대구사광회는 현실의 객관적 기록성을 사진의 본질로 여기며 리얼리즘 사진을 전개해 나갔고, 이형록(1917-2011)의 신선회(1956)를 비롯해 임응식(1912-2001)이 주창한 ‘생활주의’에 의해 힘이 실리면서 한국사진계의 한 경향으로 자리를 잡아나갔다. 사진의 주관성, 인간의 내면성에 도달하고자 했던 대구사우회는 사진만의 독자적인 표현을 통해서 전통적 회화주의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리얼리즘 사진을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주관적 사진은 물론 서구의 모더니즘 사진은 적합한 모델이 되어 주었다. 기하학적 형태와 패턴 그리고 빛과 어둠으로 환원된 세계는 사진만이 가능한 재현과 표현에 도달케 했다. 이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데 관심을 버리고, 현실에 내재된 추상적 형태에 몰입해 사진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했다. 독일의 주관적 사진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 전역과 일본을 포함해 국내의 사진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김재수는 물론 강영호, 박달근, 김태한 등 대구사우회는 가장 의욕적으

8) 김재수, 「구상과 비구상 사진소고(상), (하) - 추상과 사실주의 사진을 중심으로」, 『대구일보』, 1961년 6월 6일-7일, 마야사진연구소, 『대구사진사 III 인물자료집』(도서출판 가람, 2008), 80-86에서 재인용.

9) 김태한, 「1961년의 회고 - 사단, 사상누각으로부터 반석위에 구축」, 『영남일보』, 1961년 12월 15일, 대구사진문화연구소, 『대구사진사 IV 인물자료집』(도서출판 가람, 2009), 152-157에서 참고.

10) 대구의 사진단체 활동에 관해서는 김소희, 「대구사진사 지형도 그리기: 1950-60년대 사진단체를 중심으로」, 『뮤지엄한미연구소 자료집 vol.14 한국사진사 학술프로젝트: 대구사진사 대구사진교육사』, 뮤지엄한미연구소 편찬(가현문화재단, 2023), 17-23 참고.

로 이를 수용했다.

IV.

김재수는 1960년대 해외에서 붐을 이룬 사진공모전에 적극적으로 부응했다. 인도, 호주, 홍콩, 브라질 등 출품지도 다양했다. 기증작에서 살펴본 바로는 1960년에는 호주 멜버른 카메라 클럽에서 열리는 사진공모전에 <펜듈럼>을 출품했고, 1961년 인도의 <캘커타 살롱(Calcutta Salon)>에는 <S홀의 인상>을 출품해 입상했다.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제 17-19회 홍콩 국제 살롱(Hong Kong International Salon)>에 <가을 여인>을 비롯해 <이양>, <수도의 인상> 등을 꾸준히 출품한 것을 비롯하여 1965년에는 <고양이>를 <싱가폴 살롱(Singapore Salon)>에 지원했고 <집으로 가는 길>을 <대만 국제 사진 살롱(International Salon of Photography of the Republic of China)>에 출품했다. 김재수의 공모전 입상작들의 전모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연보는 1961년 호주 국제전 등 50여점 입선했다고 전하고 있어 해외 공모전 입상작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수의 사진공모전 출품작은 입상의 당락을 떠나서 당시의 국내 사진계에 일었던 해외 사진공모전의 붐을 대변하고 있다. 많은 사진가들이 해외의 사진공모전을 사진의 제도적 정비가 마련되지 않은 현실적 상황을 타개하고 세계적 기준과 공정한 평가로 사진적 역량을 객관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김재수를 비롯하여 배상하(1922-1965), 박영달(1913-1986), 박달근, 김영민(1913-1992), 도봉준(1923-2010) 등 대구사광회와 대구사우회 할 것 없이 일본, 미국, 프랑스 등 해외 공모전에 출품해 다수 입상했으며, 김재수에 따르면 “중앙 사단을 누르고 외국 입선 점수가 1백 50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였다.”¹¹⁾ 그러나 사진공모전마다 애호하고 선호하는 사진 스타일은 달랐다. 대구사광회의 박영달, 배상하와 같이 현실을 꾸밈없이 재현하는 경향이 강한 사진은 주로 일본 아사히신문사 주최의 <국제사진살롱>과 프랑스의 <보르도국제사진살롱> 등에서 입상했고, 사진의 객관성보다는 작가의 주관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강영호, 김재수 등은 홍콩 <국제사진살롱>이나 호주의 시드니 <국제사진살롱>에서 입상했다.¹²⁾

김재수가 공모전에 몰두할수록 사진은 패턴화, 추상화 되어갔다. 그는 반복되는 형상이 만들어내는 패턴을 좇았다. 김재수는 기와집 한쪽 벽면, 건어물을 말리는 건조대, 절간 앞 나열된 고무신 등 일상 속에서 찾은 사물의 반복적인 형상을 흑백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강조했다. 그리하여 현실의 사물은 또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원형의 모양이 중첩되거나 중복되면서 기하학적 패턴을 평면적으로 그려낸 것은 수레바퀴였고, 같은 모양의 원형이 화면을

11) 김재수, 「광복 이후의 대구사단」, 『영남일보』, 1969년 8월 20일.

12) 정홍기, 「face to face: 대구원로 사진가 김재수」, 8-9.

가득 매운 것은 공사장 드럼통이었다. 현실에 숨겨진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인 패턴은 정지된 사물의 시간을 지연시키고 재현의 발목을 잡았다.

V.

김재수는 일생을 사진 미학 탐구에 헌신했다. 김재수의 63점의 빈티지 사진 아카이브는 1945년부터 1980년대까지 40여 년간 김재수가 사진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의 헌신이 어떠한 꿈을 꾸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의 꿈은 한국사진의 한 갈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갔는지를 반영한다. 해방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하며 시작했지만 김재수는 자신을 사진가로 자각한 이후부터 현실의 재현에만 몰두하지 않았다. 아니 현실의 사실적 풍경은 오히려 외면했다. 그의 사진은 오롯이 빛과 어둠이 만들어내는 기하학적 세계, 평범한 일상의 순간에 날아든 비범한 미학적 장면, 지극히 현실적인 풍경에 포착된 추상적인 언어와 구성적인 형태에 더욱 매료되어 있었다. 김재수가 보기에 사진의 추상성을 통한다면 “감각”을 나누고 “객관적인 현실을 부정”하여 “우주적 사상관”을 전달할 수 있고, “인간의 사유를 직접 전달”하여 보다 “고차원적이고 지양된 창작 의욕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김재수는 사진의 객관성에 저항하면서 현실이라는 장막이 오랫동안 우리의 눈에 덮어두었던 그 낯선 감각을 빛과 어둠으로 환원된 진정한 사진적인 세계로 인도하고 있었다.

김 소 희
뮤지엄한미연구소 학예연구관

뮤지엄한미 김재수 기증 사진 목록



김재수, <템트(Tempt)>, 1964,
Gelatin silver print, 37 x 51 cm

김재수 사진 목록은 2023년 뮤지엄한미연구소가 김재수의 빈티지 사진 64점을 디지털화 하면서 사진에 기입되어 있는 정보와 함께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는 김재수의 젤라틴 실버 프린트 59점과 컬러 프린트 4점 그리고 류재성(劉載晟)의 젤라틴 실버 프린트 1점을 포함하며, 김재수의 작품 활동의 전모는 아닐지라도 그의 사진을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목록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김재수의 사진 목록은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광장에 모인 군중 사진을 시작으로 1986년 무용수를 찍은 컬러 작품 <무(舞)>까지 선생의 40여 년 작품 활동을 집약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60년 대구사우회(1954) 작품전에서 발표한 <펜듈럼(Pendulum)>, 1961년 인도의 <캘커타 살롱(Calcutta Salon)>에서 입상한 <S홀의 인상> 그리고 1971년 한국 사진작가협회의 <제9회 10결상> 수상작인 <행상> 등은 1960-70년대 김재수의 사진적 이

력을 보충하고 당시 한국사진사 전개에 있어서 대구사진계의 활동의 빈곳을 메워주는 빈티지 사진들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특히 사진 뒷면의 정보 즉, 주로 해외 사진공모전 출품 도장과 출품자 이름표 등은 작품명, 작가명, 제작 연도와 같은 기본적인 명확한 작품 정보는 물론이고 김재수가 1960년대 해외 사진공모전에 출품한 사진들의 목록 일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국내의 해외 공모전 붐 현상을 보다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외 공모전 출품지는 호주 멜버른 카메라 클럽(Melbourne Camera Club), <인도 캘커타 살롱>, <홍콩 국제 살롱(Hong Kong International Salon)>,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아그루파시온 포토그라피카(Agrupacion Fotografica)> 등이 있다.

김재수의 18점의 공모전 출품작 중에는 일부 탈락하여 반환된 사진을 포함하고 있으며, 김재수는 이를 중성지에 붙이거나 낱장으로 박스에 보관해왔다. 보관 형태는 크게 세 가지인데 낱장, 매트, 액자이다. 매트는 중성 매트와 일반 종이 있는데, 회색 종이에 붙여져 있던 사진들에는 전시 출품을 위해 번호로 순번이 매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재수의 사진들은 적절치 못한 보존환경과 중성 매트지가 아닌 일반 종이나 낱장으로 보관되어 왔지만, 변색과 산화가 일부 진행된 사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오염이나 훼손이 적은 편이었다. 뮤지엄한미연구소는 모든 사진을 디지털 스캔했고, 스캔이 불가능한 크기의 사진은 복제 촬영을 통해서 디지털 데이터화했으며, 사진의 세부 정보를 기입해 파일화한 후 원본은 뮤지엄한미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다.

김 소 희
뮤지엄한미연구소 학예연구관

김재수 기증 사진 목록



1945. 8. 15.,
Gelatin silver print,
12 x 8.7 cm

1



1958. 11. 28.,
Gelatin silver print,
7.7 x 5.9 cm
Reica M3,
Summicron f2,
Ansco

5



연도미상, Gelatin
silver print,
8 x 12 cm

2



〈펜듈럼(Pendulum)〉
1960, Gelatin silver
print, 41 x 51 cm

출품: 《제5회 대구사우회
작품전》(대구 USIS화랑,
1960.12.1.-4.)

특이사항: Melbourne
Camera Club 출품도장

6



연도미상, Gelatin
silver print,
29 x 24 cm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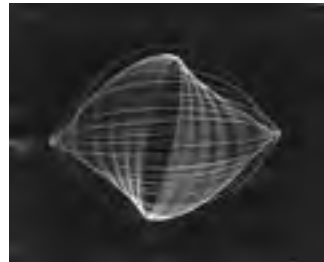
〈펜듈럼(Pendulum)〉
1960, Gelatin silver
print, 46 x 57 cm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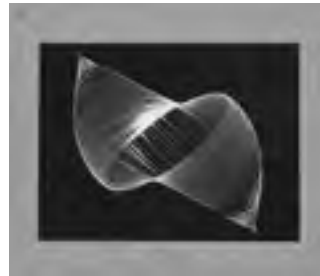
쾌청 성주중학의 □
연도미상, 10. 27.,
Gelatin silver print,
7 x 10 cm

4



1960, Gelatin silver
print, 18 x 22 cm

8



1960, Gelatin silver
print, 19 x 25 cm

9



1961. 2., Gelatin
silver print,
18 x 12 cm
Nikon F, Ansco

13



〈S홀의 인상〉 10
c. 1960, Gelatin
silver print,
25 x 19 cm

남부 캘커타 카메라클럽(South
Calcutta Camera Club)
주최, 《제4회 캘커타살롱(4th
Calcutta Salon)》입상, 1961.

출품: 《제5회 대구사우회
작품전》(대구 USIS화랑,
1960.12.1.-4.)

10



〈무제(No title)〉
1961, Gelatin silver
print, 34 x 48 cm

특이사항: [16th] The
Photographic Society of
Hong Kong International
Salon 1961 출품도장

14



〈동자승(Boy Priest)〉
c. 1960, Gelatin
silver print,
45 x 29 cm

특이사항: Nantes-3 Salon
International 출품도장

11



〈무제(No title)〉
1961, Gelatin silver
print, 27 x 40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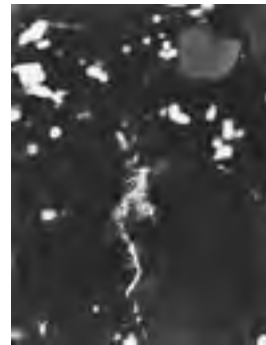
15



〈펄(Purl)〉
c. 1961, Gelatin silver
print, 45 x 33 cm

특이사항: 4th Calcutta
Salon 1961 출품도장

12



〈프로필(Profile)〉
1961, Gelatin silver
print, 51 x 39 cm

특이사항: Queensland
International Salon 1961
출품도장

16



17

〈가을 여인(A woman in Autumn)〉
1962, Gelatin silver print, 51 x 40 cm

특이사항: 17th Hong Kong International Salon 1962
출품도장



21

〈잔해(Carcass)〉
1960s, Gelatin silver print, 57 x 42 cm



25

〈작은 백로 한 쌍(Little Egret Pair)〉
1964, Gelatin silver print, 41 x 51 cm

특이사항: 19th Hong Kong International Salon 1964
출품도장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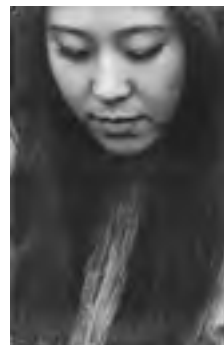
1960s, Gelatin silver print, 51 x 39 cm



18

〈무제(No title)〉
1962, Gelatin silver print, 49 x 37 cm

특이사항: 17th Hong Kong International Salon 1962
출품도장



22

〈이 양(Miss Lee)〉
1963, Gelatin silver print, 56 x 36 cm

특이사항: 18th Hong Kong International Salon 1963
출품도장



26

〈기도(Pray)〉
1964, Gelatin silver print, 37 x 51 cm

특이사항: 19th Hong Kong International Salon 1964
출품도장



30

〈수도의 인상 (Impression of Ascetic Practice)〉
1965, Gelatin silver print, 27 x 43 cm

특이사항: 16th Singapore Salon 1965
출품도장



19

〈어부(Fish Man)〉
1960s, Gelatin silver print, 41 x 53 cm



23

〈템트(Tempt)〉
1964, Gelatin silver print, 24 x 30 cm

특이사항: Agrupacion fotografica, "San Juan □□ □□□" Barcelona, Espana.
출품도장



27

1960s, Gelatin silver print, 53 x 41 cm

특이사항: Y.M.C.A Camera Circle Sydney International Exhibition
출품도장



31

〈기도(Pray)〉
1965, Gelatin silver print, 44 x 26 cm

특이사항: 3rd International Salon of Photography of the Republic of China 1965
출품도장



20

〈잔해(Carcass)〉
1960s, Gelatin silver print, 25 x 19 cm



24

〈템트(Tempt)〉
1964, Gelatin silver print, 37 x 51 cm

특이사항: 19th Hong Kong International Salon 1964
출품도장



28

1960s, Gelatin silver print, 25 x 19 cm



32

1960s, Gelatin silver print, 18 x 25 cm



33

〈집으로 가는 길(Way Home)〉
1965, Gelatin silver print, 44 x 27 cm

특이사항: 3rd International Salon of Photography of the Republic of China 1965 출품도장



37

연도미상, Gelatin silver print, 25 x 17 cm



34

〈집으로 가는 길(Way Home)〉
1965, Gelatin silver print, 25 x 19 cm



38

연도미상, Gelatin silver print, 19 x 14 cm



35

〈집으로 가는 길(Way home)〉
1965, Gelatin silver print, 51 x 38 cm



39

연도미상, Gelatin silver print, 19 x 14 cm



36

〈고양이(A Cat)〉
1965, Gelatin silver print, 43 x 27 cm

특이사항: 16th Singapore Salon 1965 출품도장



40

연도미상, Gelatin silver print, 19 x 25 cm



41

〈행상〉
c. 1966, Gelatin silver print, 41 x 50 cm

1972년 한국사진협회 제9회 10결상 수상



45

연도미상, Gelatin silver print, 25 x 19 cm



42

〈행상〉
c. 1966, Gelatin silver print, 41 x 51 cm



46

〈자매〉
연도미상, Gelatin silver print, 19 x 25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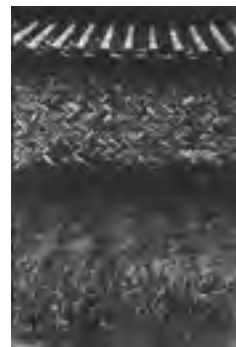
43

연도미상, Gelatin silver print, 51 x 42 cm



47

연도미상, Gelatin silver print, 19 x 25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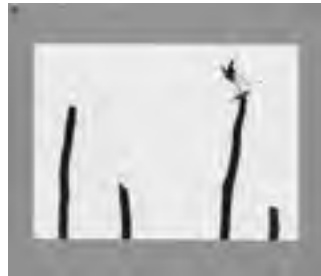
44

연도미상, Gelatin silver print, 36 x 24 cm



48

〈고독〉
1962, Gelatin silver print, 25 x 19 cm



49

연도미상, Gelatin silver print, 19 x 25 cm



53

연도미상, Gelatin silver print, 51 x 37 cm



57

〈정렬〉
연도미상, Gelatin silver print, 51 x 38 cm



61

연도미상, c - print, 35 x 48 cm



50

연도미상, Gelatin silver print, 19 x 25 cm



54

연도미상, Gelatin silver print, 19 x 25 cm



58

〈정렬〉
연도미상, Gelatin silver print, 58 x 40 cm



62

〈세월〉
연도미상, c - print, 50 x 34 cm



51

연도미상, Gelatin silver print, 25 x 19 cm



55

연도미상, Gelatin silver print, 39 x 51 cm



59

연도미상, Gelatin silver print, 20 x 25 cm



63

〈호반〉
연도미상, c - print, 42 x 58 cm



52

연도미상, Gelatin silver print, 25 x 19 cm



56

〈정렬〉
연도미상, Gelatin silver print, 25 x 19 cm



60

〈무(舞)〉
1986, c - print, 48 x 32 cm



64

*류재성(劉載晟) 작
연도미상, Gelatin silver print, 23 x 32 cm

연구소 자료 소개 1:

대구사우회 작품전 팸플릿 (제2, 5, 9, 10, 11, 15회)

원문은 당시의 표기를 그대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재의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 맞춤법에 맞지 않은 부분들은 독자의 편의를 위해 수정하였고 일부 []안에 병기했다. 한자는 모두 한글 독음으로 고쳤으며, 의미 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처음에 한에서 원래의 한자를 ()안에 병기했다. 식별이 어려운 경우 글자 수에 맞게 □로 표기했다.

제2회 대구사우회 사진발표전

장소 U.S.I.S | 기간 4291[1958].3.8.-10. | 후원 한국사진작가협회 경북지부, 경북사진작가연맹, 대구일보사.



표지



내지 총 2쪽

목차

강영호	1. <조춘>	11. <상객>	이동균	21. <재롱동이>	
	2. <같이 놀자>	12. <보고싶어서>		22. <급한 거림[걸음]>	
	3. <밤의 점경>	13. <양지>	임윤창	23. <빙전>	
김태환	4. <꿈>	서연봉	14. <원설(怨雪)>	24. <고산화(금강초롱꽃)>	
[김태한]	5. <군동>		15. <귀암(歸庵)>	25. <법회의 일각>	
김석하	6. <뒤골목>		16. <삼소년>	26. <합장>	
	7. <해동>	신국선	17. <고목>	27. <벽보>	
	8. <온안(溫顔)>		18. <노점>	최역만	28. <영하 삼십도>
박소연	9. <오백라한(五百羅漢)>	안월산	19. <봄을 등지고>	한종석	29. <누-드>
서태석	10. <취흥(醉興)>		20. <승방>	한석우	30. <무제>

제5회 대구사우회 작품전

장소 대구 U.S.I.S화랑 | 기간 1960.12.1.-4.



표지



내지 총 2쪽

작품목차(가나다순)

강영호	1. <작품>	김재수	9. <펜트럼>	도재원	17. <피서군(避暑群)>
김태한	1. <반영>(컬러)		10. <S홀의 인상>	안월산	18. <군상>
	2. <점경>	김석하	11. <무제>	이동호	19. <성하의 음지>
	3. <신감각>	김윤석	12. <엠티>		20. <불춤>(컬러)
	4. <작품>	도주룡	13. <입례>	이종호	21. <무제>
김병곤	6. <파창(破窓)>		14. <고도의 점경>	조상민	22. <막후(幕後)>
	7. <응시>(컬러)		15. <모색>		23. <뒷골목 촌경>
	8. <악기점 원도어의 환상>(컬러)		16. <무제>(컬러)		24. <명상>
					25. <추색>(컬러)

제9회 대구사우회 작품전

장소 경북공보관화랑 | 기간 1966.8.1.-8.6. | 후원 예총경북지부



표지



내지 총 2쪽

목차

강운구	1. <눈 오는 날>	박 찬	1. <버들피리>	이수일	1. <공사장>
구자원	1. <연륜>	박해동	1. <사양(斜陽)>		2. <삼웅(三熊)>
	2. <건어>		2. <하희(夏戲)>	이종필	1. <창>
김동문	1. <하동(河童)>	변운섭	1. <설경>		2. <구도>
	2. <계곡>	서경숙	1. <Sea story>	이종호	1. <해변>
김재수	1. <무제 C>		2. <제(題)>	이호성	1. <한쌍>
	2. <무제 D>	서윤남	1. <작품 A(컬러)>	장원식	1. <무제>
김창수	1. <포오프레이트>		2. <작품 M>	정태영	1. <소녀>
김여생	1. <고독>	배상인	1. <노변(路邊)>		2. <포오프레이트>
	2. <기원>	백갑포	1. <생태 A>	조경렬	1. <조화>
김연옥	1. <동심>		2. <생태 B>		2. <한여름 낮의 수기>
김 동	1. <포오프레이트>	백춘기	1. <강변>	조상민	1. <흑선>
김우상	1. <하동(夏童)>	송명준	1. <해동>		2. <무아>
도주룡	1. <무제 A>	여상구	1. <관중>	최박지	1. <어(魚)>
	2. <무제 B>	여유동	1. <작품 D>		2. <해변>
박근수	1. <개구리>	여해석	1. <구성>	최준현	1. <쇠사슬>
박달근	1. <사형수>		2. <군동>		2. <작품 B>
	2. <조손>	윤기복	1. <콤포지션>	최재영	1. <작업>
박성준	1. <습작>		2. <무제>		2. <어부>
	2. <Composition>	이만정	1. <조하강변>	하전건	1. <연(戀)>
박용봉	1. <무제>	이성수	1. <시(視)>		2. <허정(虛情)>
			2. <응시>		

제10회 대구사우회 작품전

장소 대구 경북공보관화랑 | 기간 1967.6.10.-15. (서울 중앙공보관화랑 / 부산 경남공보관화랑)



표지



내지 총 26쪽



김재수의 <E양>이 실린 내지

제10회 대구사우회 작품전 목록 (29명, 72점)

강운구	1. <선 (M)>	25. <전표>	장원식	49. <재생>	
	2. <선 (N)>	26. <무너진 휴담>		50. <기원>	
구자원	3. <무정>	서경숙	27. <ETUDE>	51. <포오프레이트>	
	4. <폐가>		28. <작품 (O)>	정성택	52. <나 홀로>
	5. <작업>	서윤남	29. <정>		53. <외다리>
김동문	6. <얼굴>		30. <여인>		54. <옥이>
	7. <창>	송명준	31. <줄다리>	정태영	55. <이방인>
	8. <구성>		32. <작품>		56. <PEEPING>
김여생	9. <쌍>	여상구	33. <쌍둥>		57. <외로움>
	10. <나>		34. <작업>	조경렬	58. <잉여인간>
	11. <문(紋)>		35. <실루엣>		59. <군동>
김우상	12. <수문>	윤기복	36. <길>	고조상민	60. <벽>
	13. <경계>		37. <작품>	차상년	61. <나룻터>
김재수	14. <E양>	이성수	38. <허(虛)>		62. <미소>
	15. <FLY>		39. <쌍(雙)>		63. <양(羊)>
	16. <탄생>		40. <비상>	최박지	64. <서광(曙光)>
고도주룡	17. <소년>	이수일	41. <호(弧)>		65. <설경 (A)>
박달근	18. <어(魚) W>		42. <SUN>		66. <설경 (B)>
	19. <목동>		43. <한(閑)>	최준현	67. <성모>
	20. <무제>	이종호	44. <자매>		68. <실제>
박성준	21. <빨래터>		45. <구성>		69. <조춘>
	22. <조화>	이종필	46. <조조>	최재영	70. <실의>
	23. <고독>		47. <미사곡>		71. <강변>
박해동	24. <SPACE>		48. <무념>	최만기	72. <작업>

제11회 대구사우회 작품전

장소 공화회관화랑 | 기간 1968.12.6.-10.



표지



내지 총 2쪽

구본철	1. <마부의 딸> 2. <작업>	박달근	1. <지향> 2. <분열>	이수일	1. <벽> 2. <해변초경>
구자원	1. <눈길> 2. <도(圖)의 구성> 3. <어취(魚臭)>	박성준	3. <하 군(河君)의 꿈> 1. <SPACE FOOD> 2. <영이 A> 3. <영이 B>	이종호	1. <황혼> 2. <실제>
김동문	1. <무-드> 2. <이발사와 소녀>	박해동	1. <작품 A> 2. <COMPOSITION>	이종필	1. <산장> 장원식 1. <작품 C>
김여생	1. <조로(朝露)> 2. <추경> 3. <향토방위>	서경숙	1. <작품 G>	정성택	1. <여심> 2. <노인> 3. <고독>
김영창	1. <소녀> 2. <화랑무>	서윤남	1. <추색>	정태영	1. <포오펀트레이트 A> 2. <포오펀트레이트 B>
김우상	1. <작업> 2. <지난여름>	송명준	1. <마스갸>	조경렬	1. <강변>
김재수	1. <프로필>	엄상수	1. <야경>	최박지	1. <작품 A> 2. <작품 B> 3. <작품 C>
		여상구	1. <컴포지션> 2. <자매>	최준현	1. <달> 2. <H양>
		이성수	1. <결실>		

제15회 대구사우회 작품전

장소 대구백화점 4층 화랑 | 기간 1972.9.12.-18. (서울 / 부산)



표지



내지 총 38쪽



김재수의 <농악 A>가 실린 내지

작품출품회원 명부

구본철	1. <노마부> 2. <모녀>	박원순	1. <엄마야!> 2. <골목점경>	박길상	1. <영(影)> 2. <Nude>
구자원	1. <대화> Color	손필현	1. <강변 A> 2. <한일(閑日)>	장원식	1. <정년의 포구> Color 2. <Smile> Color
권혁수	1. <개구장이> 2. <낮잠>	여상구	1. <해탈의 길> 2. <모정>	정두용	1. <모색> 2. <하정>
김동문	1. <하동>	유재욱	1. <어린이> 2. <노승>	정만상	1. <작업> 2. <자매>
김부동	1. <탈속> 2. <Nude>	윤기복	1. <나목>	정성택	1. <생명> 2. <노(老)>
김여생	1. <고목> 2. <열연>	이민희	1. <모정> 2. <배색> Color	정태영	1. <여심 A> 2. <여심 B>
김우상	1. <비상> 2. <하동>	이봉하	1. <미풍> Color	지윤택	1. <쌍(雙)> 2. <투(鬪)>
김재수	1. <농악 A> 2. <농악 B>	이성수	1. <용운(龍雲)>	최박지	1. <설경 A> 2. <설경 B>
김주숙	1. <역동> 2. <해변점경>	이수일	1. <기(祈)> 2. <오수> Color	최복문	1. <겨울> 2. <설동(雪童)>
김태갑	1. <정(靜)> 2. <Nude>	이용길	1. <눈길> 2. <귀로>	최연희	1. <희(喜)>
박달근	1. <Nude> 2. <조추(早秋)>	이원충	1. <허(虛) A> 2. <허(虛) B>		
박상근	1. <열(悅)> 2. <무희>	이택웅	1. <노쇠> Color 2. <농악> Color		

연구소 자료 소개 2: 서규원 기증 자료 목록

연구소 자료 소개 두 번째는 서규원 선생이 뮤지엄한미연구소에 기증한 대구사진사 관련 자료 목록이다. 서규원 선생은 1970년대부터 대구사광회에서 활동하며 대구사광회 자료를 모으고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일평생 대구사진사 관련 자료를 수집해왔으며 그 분량이 700점이 넘는다. 뮤지엄한미연구소는 2023년 자료집 14호 『한국사진사 구술프로젝트: 대구사진사와 대구사진교육사』의 조사·연구를 실시하던 중 대구사진사의 실증적 토대가 되는 이 방대한 아카이브 가운데 1960-80년대 대구를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한 강영호, 노익배, 신현국, 서규원 선생의 사진집을 비롯하여 대구사광회 및 대구사우회 사진집과 《매일어린이사진전》 수상작 도록 등 대구사진사 전개에 중요한 사진단체 및 전시 관련 자료를 선생으로부터 기증 받았다. 선생의 기증 자료 27점을 목록으로 정리해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기증자 소개

서규원(雲峯 徐圭源, b.1938)

1965년 동일철강 재직 중에 교류했던 매일신문사 사진부장 신현국의 권유로 사진에 입문했다. 1968년 매일신문사 주최 《제12회 어린이 사진공모전》에서 입선하면서 대구사광회에 입회했다. 1974년 《제12회 동아사진콘테스트》를 시작으로 1977년까지 연이어 입상했고, 같은 해 《제2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1980년 홍콩 《제35회 국제사진살롱》 등 국내외 공모전에서 다수 입상했다. 1996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최 《예총예술문화상》 예술문화공로상, 1999년 《한국사진문화상》 공로상, 2000년 《금복문화예술상》 등을 수상했으며, 대구사광회 회장, 한국사진작가협회 운영자문위원, 한국예총 대구지부 고문 등을 역임했다. 주일한국문화원 후원 《한국사진 50년전》(일본 도쿄 주일한국문화원, 1984), 《DAC 작가시리즈 I 원로작가회고전-서규원》(대구문화예술회관, 2016), 《제6회 대구사진비엔날레》 초대전시 《사진작가 30인전》(봉산문화회관, 2016)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고, 2016년 첫 번째 사진집 『운봉 서규원 사진집 - 50년 사진 여로, 삶』을 출간했다. 2023년에는 일평생 수집해 온 대구사진사 관련 자료 700여 점을 대구시에 기증했다.

No	유형	자료명	발행연도	저자 / 발행처	페이지수
1	도서	경북사진연감(광복30주년기념)	1975	도서출판 일심사	144p.
2	도서	한국사진사	1976	강상규 / 형성출판사	167p.
3	도서	창립22주년 사광회원 사진전作品集 (매일화랑, 1977.10.15.-20.)	1977	대구사광회	30p.
4	도서	창립23주년 사광회원전作品集 (매일화랑, 1978.10.22.-27.)	1978	대구사광회	20p.
5	도서	김일창 사진집 적(跡)「TRACE」	1979	분도인쇄출판사	100p.
6	도서	창립24주년 사광회원전作品集 (매일화랑, 1979.11.7.-11.)	1979	대구사광회	24p.
7	도서	창립25주년기념 사광회사진집	1980	대구사광회	132p.
8	학위 논문	사진전래와 대구사단의 사적 고찰	1984	김일창 /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60p.
9	도서	창립30주년기념 사광회사진집	1985	대구사광회	186p.
10	도서	노익배 사진집	1986	노익배	178p.
11	도서	어린이사진작품집	1986	대구매일신문사	232p.
12	도서	대구사진연감	1988	(사) 한국사진작가협회 대구직할시 지부	208p.
13	도서	강영호 사진집	1989	강영호 / 목언출판사	142p.
14	도서	대구예술30년사	1993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대구직할시 지회	962p.
15	도서	신현국 사진집, 인생의 목격자	1994	신현국 / 사진예술사	152p.
16	팸플릿	신현국사진전 (포스코문화갤러리, 1994.10.7.-13.)	1994	포스코문화갤러리	4p.
17	도서	제1-20회 대구흑백사진대전 입상작품집	1998	(사) 한국사진작가협회 대구광역시지회	170p.

No	유형	자료명	발행연도	지자 / 발행처	페이지수
18	도서	(1945-1998)대구근현대사진선집(국내외 입상작품)	1998	(사) 한국사진작가협회 대구광역시지회	168p.
19	도서	도봉준 사진집	1999	도봉준	162p.
20	도서	제50회 회원작품전기념 대구사우회 회원사진집 (대구시민회관 전시실, 2005.6.25.-29.)	2005	대구사우회	136p.
21	도서	남해경 사진집	2006	남해경 / 도서출판 비타임	96p.
22	도서	제50회 매일어린이사진전 (대구문화예술회관 전시실, 2006.5.16.-21.)	2006	매일신문사	94p.
23	도서	사광회 60주년 사진집 멈춘빛 머문세상 (대구문화예술회관 11-13 전시실, 2015.10.6.-11.)	2015	대구사광회	168p.
24	도서	운봉 서규원 사진집 - 50년 사진 여로, 삶	2016	월드출판사	276p.
25	도서	DAC 작가시리즈 I 원로작가회고전 서규원 (대구문화예술회관 1-3 전시실, 2016.6.29.-7.17.)	2016	대구문화예술회관	28p.
26	도서	2017 대구사진연감	2017	(사) 한국사진작가협회 대구광역시지회	334p.
27	도서	2020 대구사진연감	2020	(사) 한국사진작가협회 대구광역시지회	342p.